

어민 생계보호 위한 인공어초 확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청어민과 간담회 열어

인천시의회에서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와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인공어초 (해저나 해중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 모으고 나아가 생물을 보호·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시설) 확대 방안 논의가 있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창호·김종배 인천시의원, 오규현 인천시 수산과장, 단은송 인천시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박태환 오진군 수산과장, 서운용 낚시선단장 및 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희 의원 주관으로 대청어민(낚시선단)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와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해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수산 자원의 조성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



인천시의회에서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와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인공어초 확대 방안 논의의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인천시의회)

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인천시 인공어초 시설 추진계획은 인천시 관할 해역 4곳에 대한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억 4400만원이다.

이 사업은 해역별로 1종의 어초 시설을 포함해 총 4종의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 추진 절차에는 적지 조사, 인공어초 추천, 어초관리위원회 개최, 공사설계 및 특허 협의, 사전 영향조사, 공사계약, 어초 제작, 어초 투하 및 공사준공 등이 포함된다.

대청어민(낚시선단)들은 이전에도 대

청도 해역 어로구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물살이 센 대청 어장에서 주요 포획 어종인 조피볼락의 생태환경 조성에 유리한 폐선 투하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인공어초 대비 폐선 투하 시 집어 효과성을 강조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 의장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의 조성은 우리 바다와 어업인들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오 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대청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인공어초 시설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 및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중삼 기자

경기교육청 늘봄학교 안정적 추진 당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위해 함께 노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6일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형 늘봄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경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해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 김선희·김현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협력과 김인숙 과장, 돌봄교육담당 배영하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

해왔다.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중심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자원 활용형 등 다양한 경기형 늘봄 모델을 구상 중이다. 또한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 및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학교 현장 안착

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바람을 꼭꼭 챙겨주고 경기도 맞춤형 늘봄 모델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늘봄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면밀히 살피자"고 주문했다.

김인창 기자

응급상황시 빠른 대처·행동요령 숙지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직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견학'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6일 서구에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총별로 위치한 다양한 안전 체험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간단한 체험 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처치 교육은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응급처치'로 구성됐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응급상황 발생 시 주저없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조양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6일 서구에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였다.

(사진=인천 계양구의회)

의회 단신

설 맞이 협업기관·전통시장 방문

인천 동구의회

인천 동구의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6일 지역 119안전센터 등 협업기관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도 반납한 채 구민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협업기관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유옥분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들은 송현119안전센터·보라매보육원·만석119안전센터 및 송림119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근무자들

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라면·컵밥 등)을 전달했다.

이어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구입했으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유 의장은 "명절 기간에도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협업기관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구민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지원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6일 설 맞이 화성시 지역 내 시설 3개소를 방문해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해남 위원장을 비롯한 김미영 부위원장, 명미정·송선영·이유은 의원이 함께 동행했으며 반월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성녀루이제의 집, 소망의동산 실로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 사항에 귀 기울였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은 "힘든 분위기 속에서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작은 나눔이지만 소외되고 어려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따뜻한 관심과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 실천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승수 기자



박광순(왼쪽 두 번째)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 6일 170여만 제3대대를 방문했다.

설 맞아 군부대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6일 아탑동에 위치한 170여만 제3대대를 방문해 격려했다.

설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위문 격려에는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 김선임 예

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여했다.

제3대대 김봉주 대대장은 "매년 성남시의회의 아낌없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위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장병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연무 기자

www.designdaejin.co.kr

도서출판 수목원가는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늘 처음느낌처럼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感 처/음/느/낌

도서출판 수목원 가는길